



중국의 수출입 및 한국의 대중 수출입 동향과 대응시사점



중국의 수출입 및 한국의 대중 수출입 동향과 대응시사점

2015. 12

kotra
중국사업단

목 차

[요약]
I. 중국 무역과 한국의 대중국 무역 동향 1
II. 무역구조 변화 4
1. 무역형태	_4
2. 가공단계	_6
3. 업종(카테고리)	_10
4. 품목별	_15
5. 국가별 수출입과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_19
III. 대중국 수출전망 20
IV. 대응시사점 23

〈요약〉

-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대세계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둔화 동향 및 구조 분석을 통해 대중국 무역 시사점을 도출
- 중국의 수출입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사이에 전체적 동조화와 세부 분야·업종별 非동조화가 병존
 - (전체)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간 동조화 지속
 - (무역형태)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과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간 非동조화 지속
 -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 감소 지속, 한국의 가공무역 중심 대중국 수출입 지속
 - (가공단계) 중국의 중간재(부품)와 최종재(소비재) 수입비중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중간재 중심 대중국 수출 지속되는 가운데 세부구조 변화
 -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내 반제품 비중 급감, 부품 비중은 급증
 - (업종)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간 부분적 동조화 시현
 - 중국의 부품·소비재·운송장비 수입 확대, 광물자원 수입 급감
 -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 급증, 산업용 가공원자재 수출 급감
 - (국가) 신흥 자원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 한국·미국등은 상대적 양호
 -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중수출 기록 중

〈중국 수출입 및 한국의 대중수출입 동향 분석 요약〉

	중국의 수출입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수출입	둔화 → 감소	급감	둔화 → 감소 - 상대적 양호	둔화
무역형태별	가공무역 비중 감소, 일반무역 비중 확대	가공무역 하향안정, 일반무역 상향안정	가공무역 중심 지속	가공무역 중심 지속
가공단계별	최종재(자본재·소비재) 중심구조 지속	중간재(부품), 최종재(소비재) 비중 확대	중간재(부품·반제품) 중심구조 지속	중간재 중심구조 지속 중 최종재(자본재·소비재) 점차 확대
업종 (카테고리별)	자본재, 소비재 중심구조 지속	부품·소비재·운송장비 확대, 자본재·산업용 1차원자재 감소	부품 급증, 산업용 가공원자재 감소, 자본재 점차 감소	산업용 가공원자재·자본재 중심 지속, 소비재·부품 비중 점차 확대
품목별	-(증가) 전자, 가구, 철강 제품, 게임용품, 선박 -(부진) 기계, 섬유류, 신발, 철강, 석유제품	-(증가) 전자·약품·팔프 -(부진) 석유제품, 광슬래그, 석유화학, 수송기계, 동	-(증가) 전자, 화장품, 선박 -(부진) 석유화학, 석유제품, 플라스틱	-(증가) 전자,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 -(부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국가별	-(증가) 일부 선진국, 동남아·미국·한국·베트남·싱가포르·태국 -(부진) 일부 선진국, 신흥국·일본, 독일, 네덜란드, 인니, 러시아	-(증가) 일부 선진국·역류국·베트남·미국·한국·대만·말레이시아 -(부진) 원자재 국가·호주, UAE, 인니, 러시아, 브라질	상대적 호조(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상대적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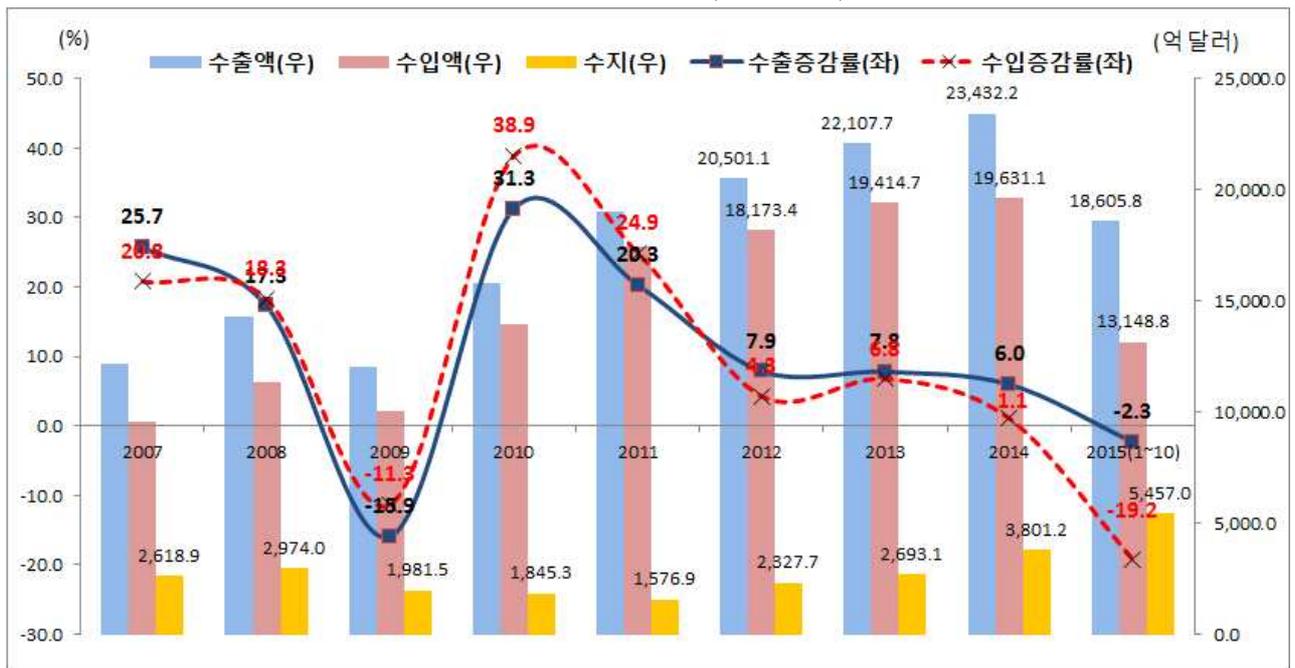
* 자료 : 본문 요약

□ 대중국 수출 시사점

- 현재의 추세로 보아 중국의 수출입 둔화는 물론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의 둔화와 구조 변화는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추세적 둔화속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의 방향은 반제품 및 자본재 중심구조에서 부품·부분품 및 소비재 중심구조로의 변화임
 - 한중 무역에서 국제분업(밸류체인)과 최종 소비재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제고와 유통망 구축이 중요해 질 것임
- 업종별 변화의 방향은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비중 감소와 전기전자 및 각종 소비재의 비중 확대임
 - 한중 무역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중요
 - 전기전자 및 소비재 비중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통망 강화와 연관 분야 개발*이 중요
 - * 전자상거래, ICT 기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등
- 가공무역은 앞으로도 한중간 수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감안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
 - 가공무역 방식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다국간 가공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중국-제3국(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가공생산(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한중 FTA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우리의 중국시장 경쟁국이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회이므로 다양한 활용전략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

- (중국의 수출입 둔화) '15년 1~10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 -19.2% 기록하여 수출의 경우 2009년 이후 6년만의 최저 증가율, 수입은 WTO 가입 이후 최저 증가율(감소) 기록
- (수출) 2010년 31.3%, 2011년 20.3% 증가율 기록한 뒤 4년 연속 8% 이하 증가율 기록해 온 가운데 올해 들어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2.3%)
- (수입) 2010년과 2011년 각각 38.9%와 24.9%를 기록한 뒤 2012년 이후 4년 연속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1~10월 -19.2%의 급감세 기록
- (불황형 흑자) 수출 감소와 수입 급감에 따라 수출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무역흑자가 늘어나는 불황형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수출입(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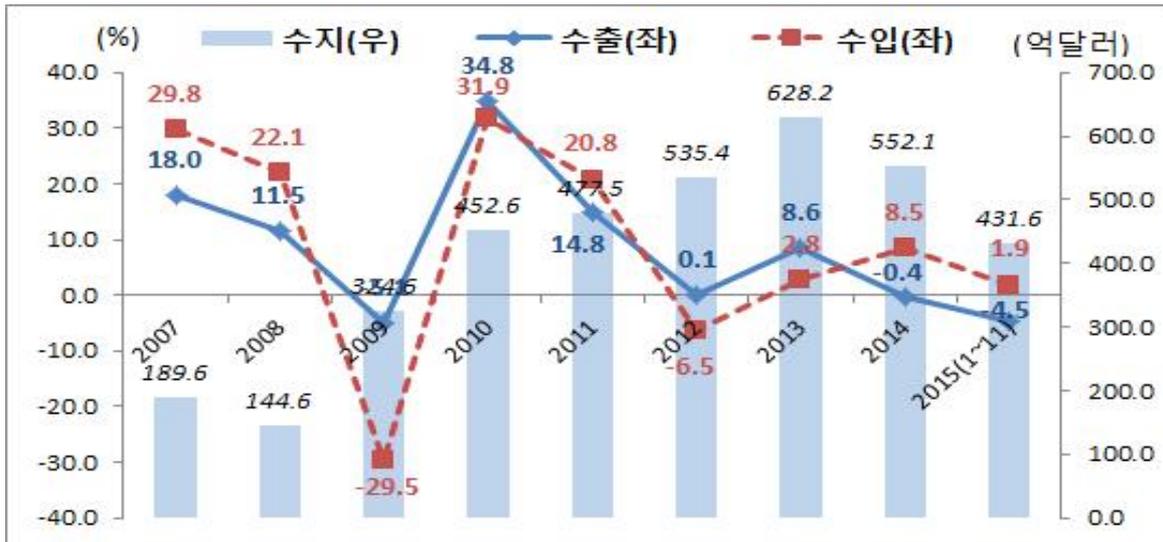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통계(kita.net)

□ (한국의 대중국 수출) '11년 14.8% 증가율 기록뒤 이후 수출둔화세 지속

- '12년 이후 13년 한해를 제외하고 10% 이하의 증가율 기록하는 가운데 작년 이후 2년째 수출감소세 지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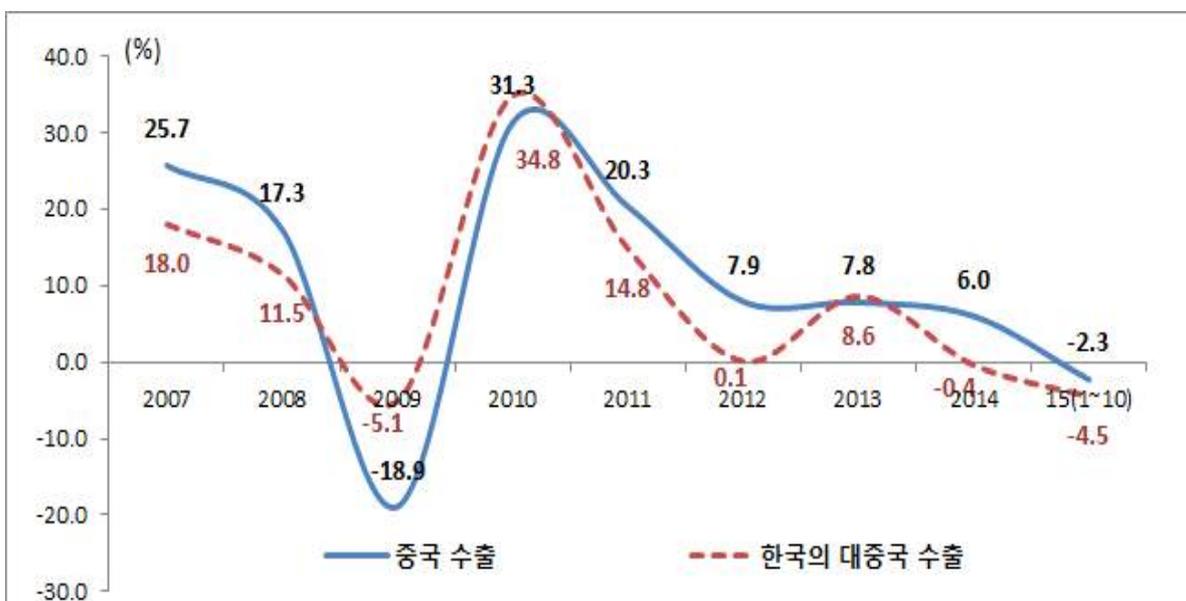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연도별, 누계)>



* 자료 : 관세청(kita.net)

- (동조화)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간에 형성된 동조화 경향은 올해에도 지속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간 동조화>



* 자료 : 한국 관세청, 중국해관통계(kita.net)

□ (물량기준) 물량기준으로는 수출입이 둔화(감소)폭이 제한적이어서 중국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임을 시사

- 수입 증가율은 2014년과 2015년 1~10월 각각 3.0%와 -0.3%로 액수 기준 증가율(각각 1.1%, -19.2%)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수출 증가율 역시 2014년과 2015년 1~10월 각각 17.2%와 6.8%로 액수 기준 수출증가율(각각 6.0%, -2.3%)에 비해 양호한 편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물량기준, %)>

년도	수출	수입
12	-6.4	11.8
13	-4.7	10.4
14	17.2	3.0
15(1~10)	6.8	-0.3

자료 : 중국해관통계(kita.net)

- 한국 대중국 수출 둔화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주요 원인
- 국제유가 하락으로 대중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
- * 기초유분 단가하락율('14.1~11월 → '15.1~11월) : 38.7%
- * 석유화학중간원료 단가하락율 : 34.6%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변화>

(단위 : 천달러, 톤, %)

	2014년 1~11월			2015년 1~11월			단가변화율 (%)
	천달러	톤	단가 (천달러/톤)	천달러	톤	단가 (천달러/톤)	
기초유분	3,928,077	3,031,489	1.296	2,399,503	3,022,430	0.794	-38.7
석유화학중간원료	6,161,892	4,688,664	1.314	5,247,980	6,104,124	0.860	-34.6
석유화학합성원료	1,369,375	1,325,167	1.033	797,388	1,017,226	0.784	-24.1
합성수지	6,948,691	3,613,939	1.923	5,819,807	3,602,112	1.616	-16.0
합성고무	584,139	316,938	1.843	486,089	332,582	1.462	-20.7
기타석유화학제품	1,327,553	957,225	1.387	947,843	943,361	1.005	-27.6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1. 무역형태

□ 중국의 대세계 가공무역* 비중 감소

* 중국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중국내 가공생산후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으로 중국은 가공무역에 대해 중국내 부가가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관세 면제등의 혜택을 부여

○ (수입) 중국의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2011년 27%로 줄어든 뒤 5년째 30% 이내 수준을 유지

-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이 가공무역 의존형 경제가 아님을 시사하며 앞으로 가공무역의 수입비중이 더욱 줄어들거나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은 적음을 시사

* 중국정부는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를 발표, 확대해 온 결과 2008년 약 1850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금지했으며, 2009~2010년에는 가공무역의 전환 및 승급을 위한 시범조치를 광둥성과 장쑤성 지역에서 실시한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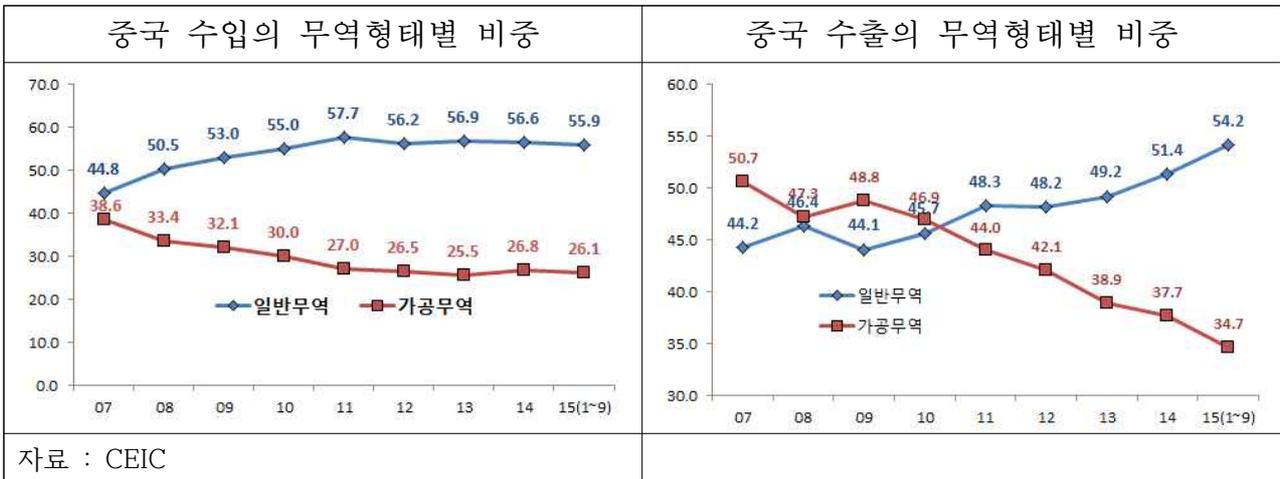
○ (수출) 반면 중국의 수출에서 가공무역은 수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에도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

- 가공무역 관련 중국내 부가가치가 더욱 많으며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

==> 이점에서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금지조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실제로 2015년 10월 말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13.5규획 건의안에 가공무역 조정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음

* 가공무역 금지 및 조정정책은 12차 5개년 규획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주요 정책의제였음



□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는 가공무역이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에서 가공무역은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대중국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음

*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 ('12년) 49.7% → ('13년) 47.6% → ('14년) 51.8%

- (대중국 수입) 대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역시 커지고 있음

* 대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 ('11년) 47.7% → ('12년) 40.1% → ('13년) 51.8%

○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중간에 생산과정을 둘러싼 무역 즉 국제분업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양호한 가운데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즉 중국을 가공무역 기지로 활용)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

2. 가공단계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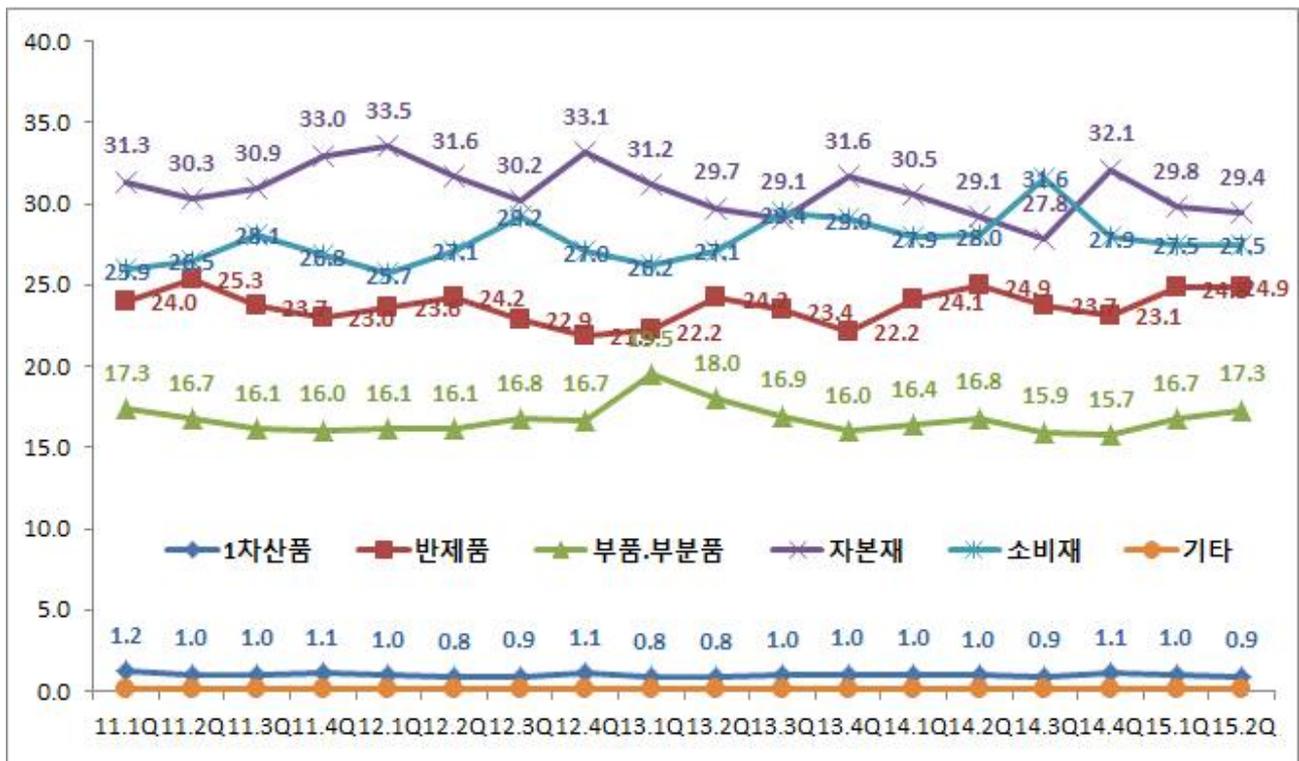
○ 중간재(반제품, 부품·부분품)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종 소비재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가공단계별 비중) 자본재(29.4%) → 소비재(27.5%) → 반제품(24.9%) → 부품·부분품(17.3%) → 1차산품(0.9%) 등 순으로 구성(2015년 2Q 기준)

** (소비재의 비중) : ('11년 1Q) 25.9% → ('15년 2Q) 27.5%

☞ 가공단계별 설명 : 중간재=반제품(다른 제품의 제조에 투입되나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제품. 예를 들어 화학, 철강등)+부품·부분품(고유의 형태와 기능을 가진채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예를 들어 전자부품, 자동차부품등) , 최종재=자본재+소비재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구조(분기별)>



* 설명 : 중국해관통계를 UN BEC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

* Trade Map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

○ 수입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 즉 소비재와 부품·부분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반제품, 1차산품(광물연료)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중국내 소비 수요 확대와 중국내 생산 역할 강화로 소비재와 부품·부분품의 수입 비중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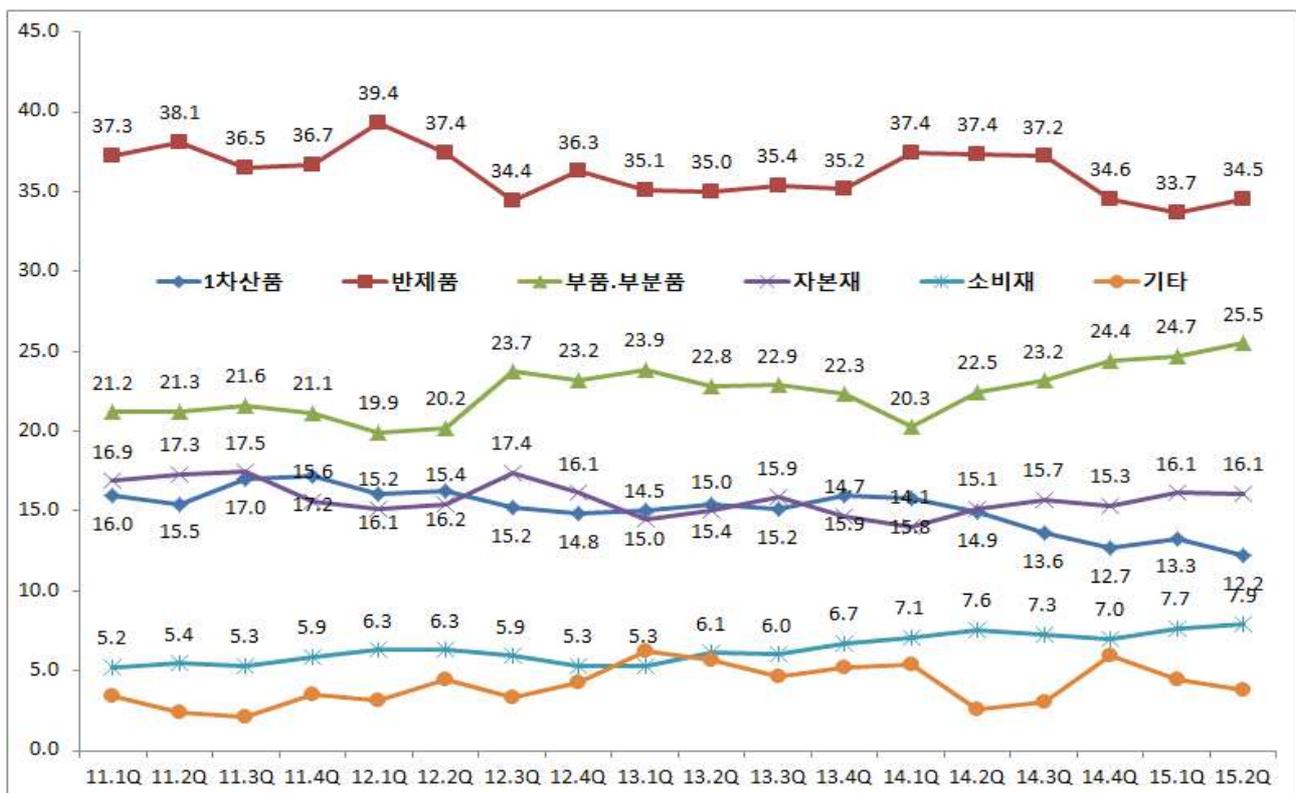
*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의 비중 : ('11.1Q) 5.2% → ('15. 2Q) 7.9%

- 반면에 국제원자재(유가) 하락으로 1차산품(원유) 비중 급감 및 국제원자재가 하락과 중국내 생산 확대로 반제품 수입비중 꾸준히 감소

* 수입에서 1차산품의 비중 : ('13.4Q) 14.7% → ('15. 2Q) 12.2%

→ 이는 중국이 글로벌 소비중심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구조(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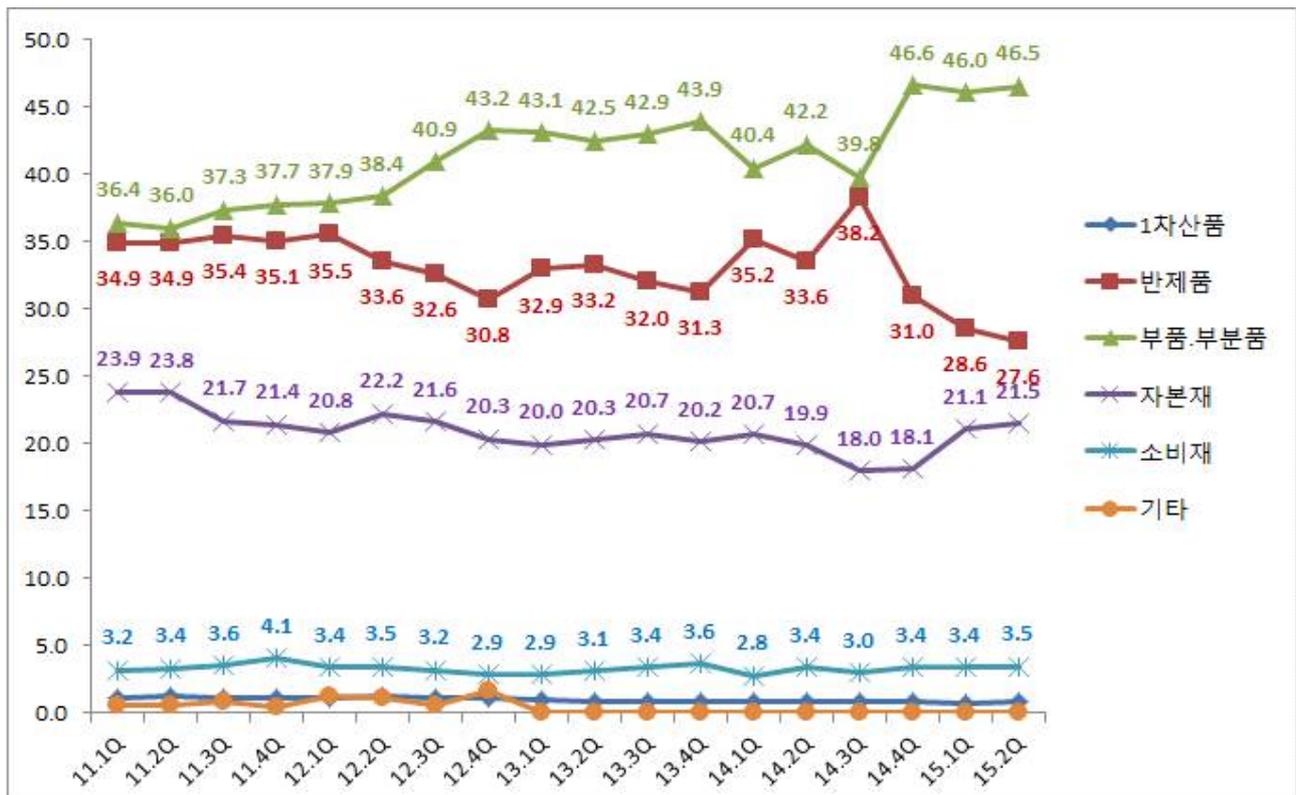


* 자료 : 중국 해관통계(HS6단위) (kita.net)

□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이에 동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수출에서 반제품 및 부품·부분품 등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간재 내에서 반제품이 급감하고 여타 가공단계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 및 중국내 공급 확대로 인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이 포함된 반제품의 비중이 2014년 3Q 38.2%에서 2015년 2Q 27.6%로 급락
 - 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면 중간재 내에서 부품·부분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39.9%에서 46.5%로 급증
 -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출 비중 확대로 최종재*의 비중도 다소간 확대**
- * 최종재=자본재+소비재
 ** 최종재의 수출비중 : ('13.4Q)24.8%(소비재 3.4%, 자본재 20.2%) → ('15.2Q) 25.1%(소비재 3.5%, 자본재 21.5%)

〈한국의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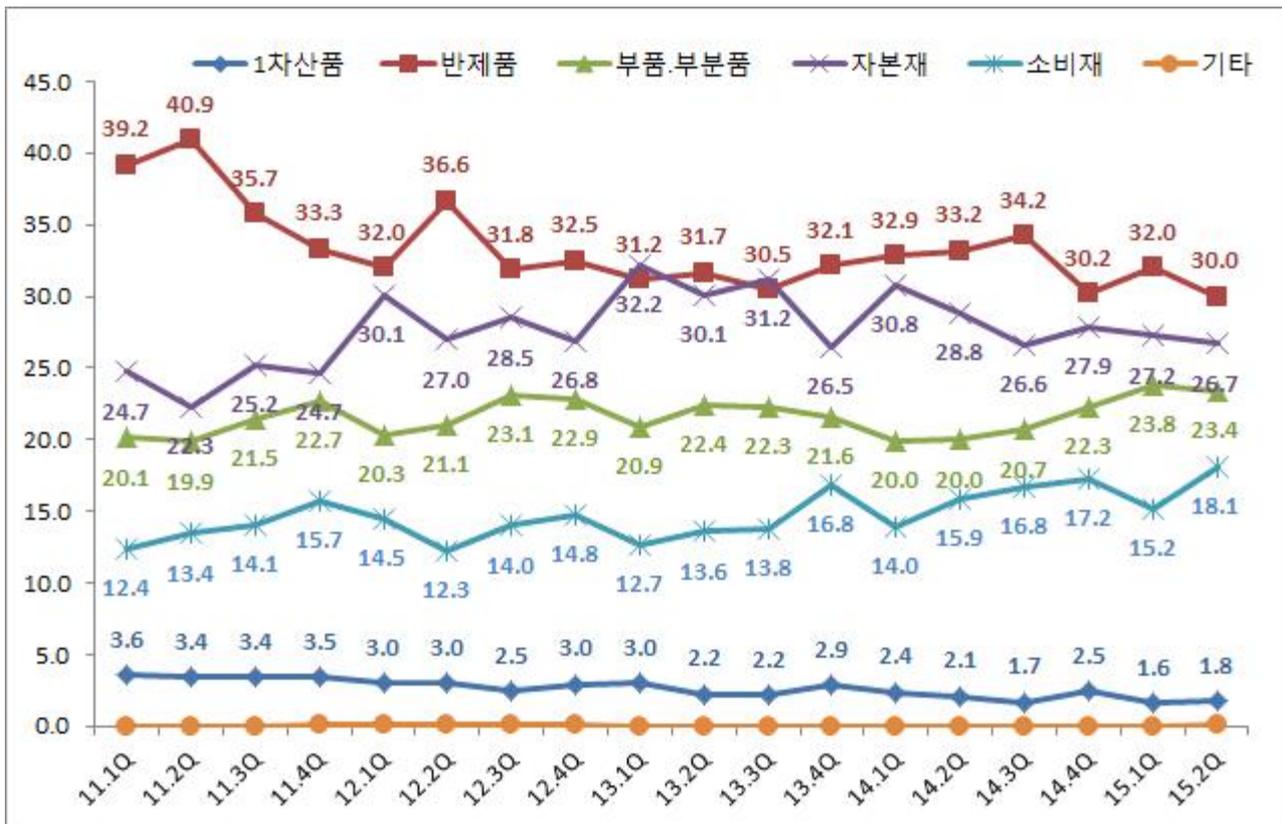


* 자료 : 중국해관통계 자료를 UN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입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구조와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간에 전체적인 동조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세부구조에서는 변화가 발생중
- 일단 중간재와 최종재간 비중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중간재 내에서는 반제품이 줄어드는 반면 부품·부분품은 증가
 - * 반제품 비중 변화 : ('11.2Q) 40.9% → ('15.2Q) 30.0%
 - ** 부품·부분품 비중 변화 : ('11.2Q) 19.9% → (15.2Q) 23.4%
 - 최종재 내에서는 소비재가 늘어나는 반면 자본재의 비중 감소
 - * 자본재 비중 변화 : ('13.1Q) 32.2% → ('15.2Q) 26.7%
 - ** 소비재 비중 변화 : ('13.1Q) 12.7% → (15.2Q) 18.14%

〈한국의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분기별)〉



* 자료 : 중국해관통계 자료를 UN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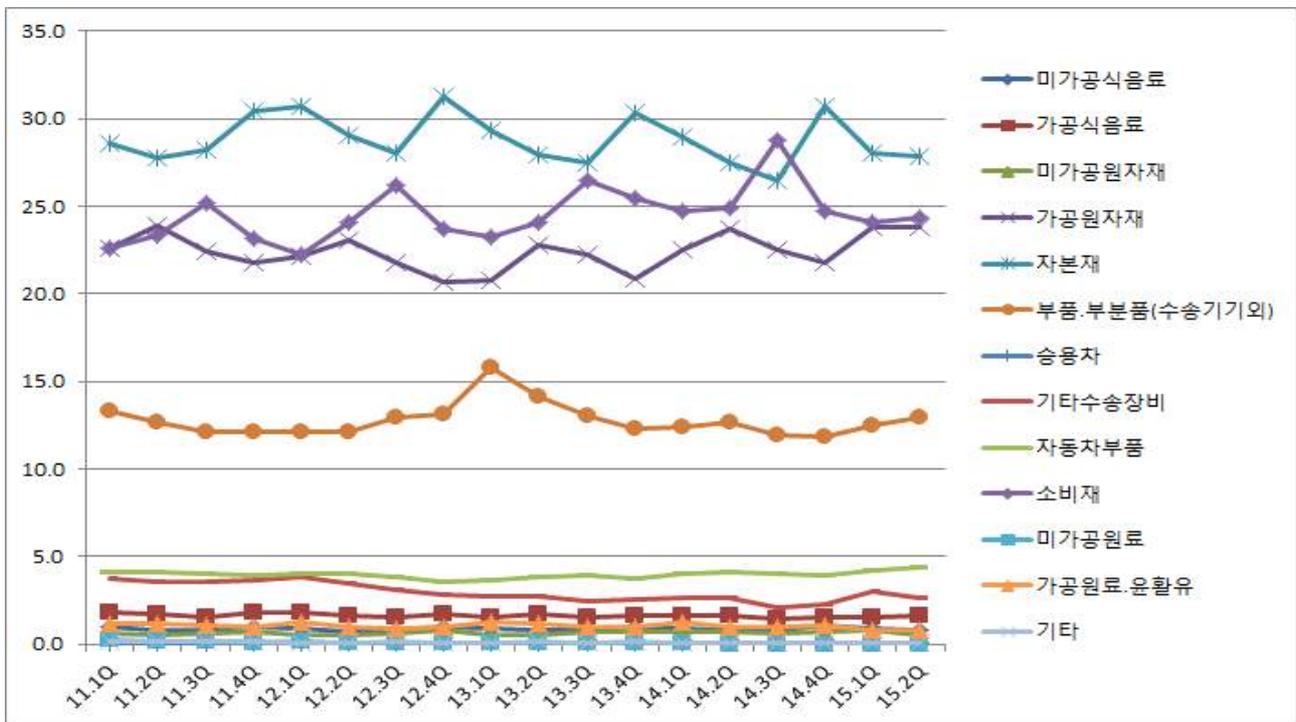
3. 업종(카테고리)

□ 중국의 업종(카테고리)별 수출입구조

- (수출구조) 품목 카테고리별 수출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외에 별다른 변화 발견되지 않음

* 업종별(카테고리별) 구분에서 소비재란 내구, 반내구, 비내구소비재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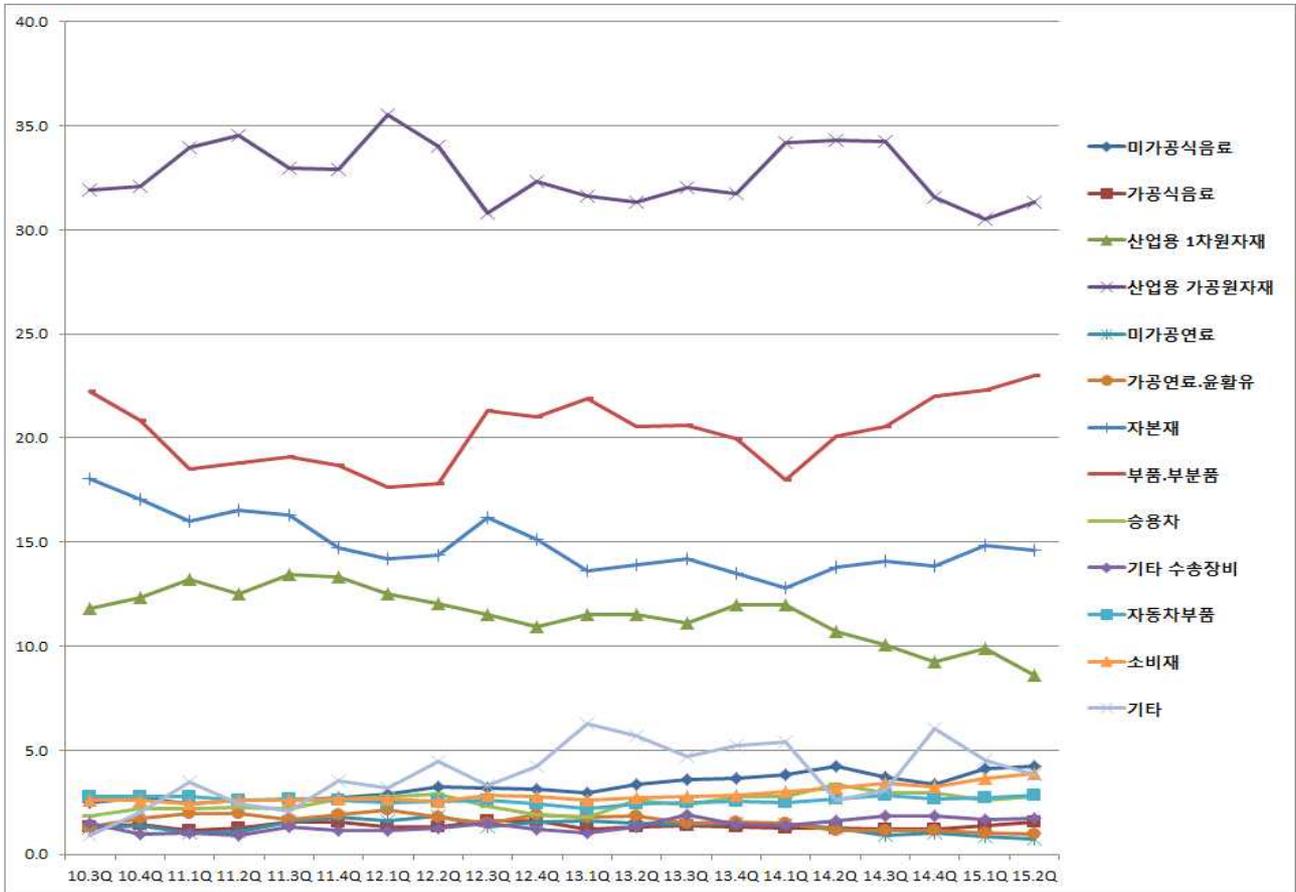
〈중국의 업종별(카테고리별) 수출구조 변화〉



* 자료 :

- (수입구조) 수입에서는 각종 소비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미가공 원자재와 중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로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소비품은 소비재(내구, 반내구, 비내구소비재), 미가공식품료, 가공식품료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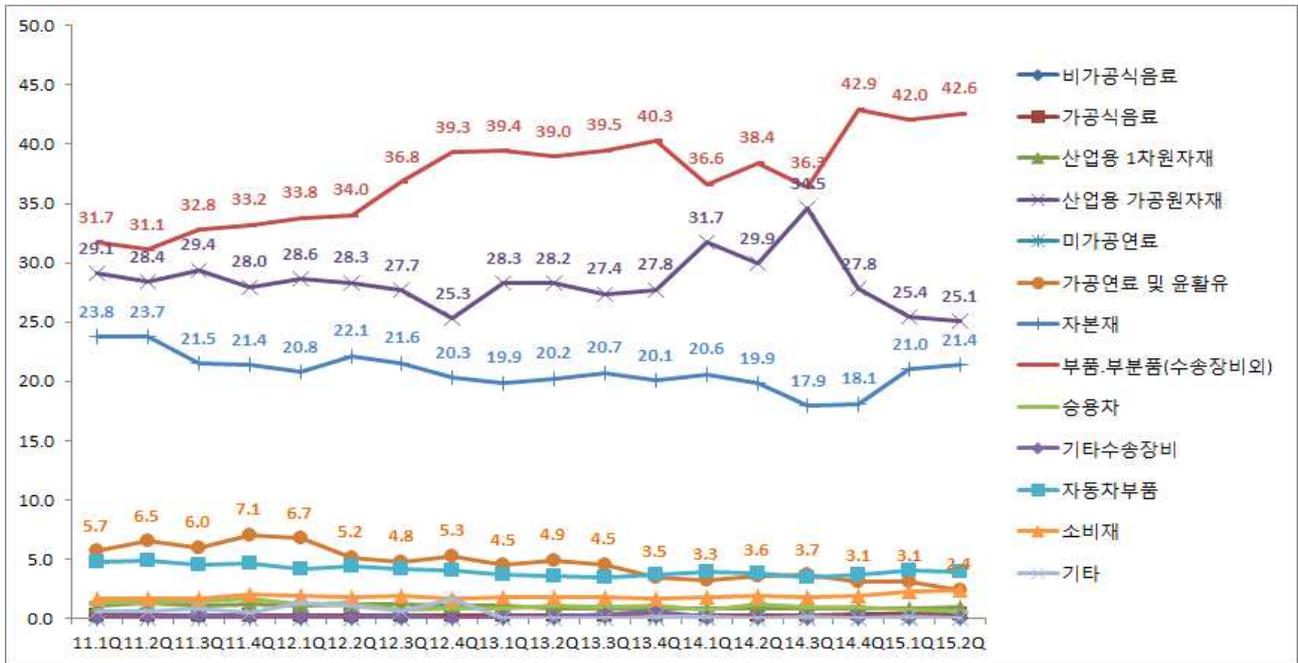
<중국의 업종(카테고리)별 수입 비중(분기별)>



□ 한국의 업종(카테고리)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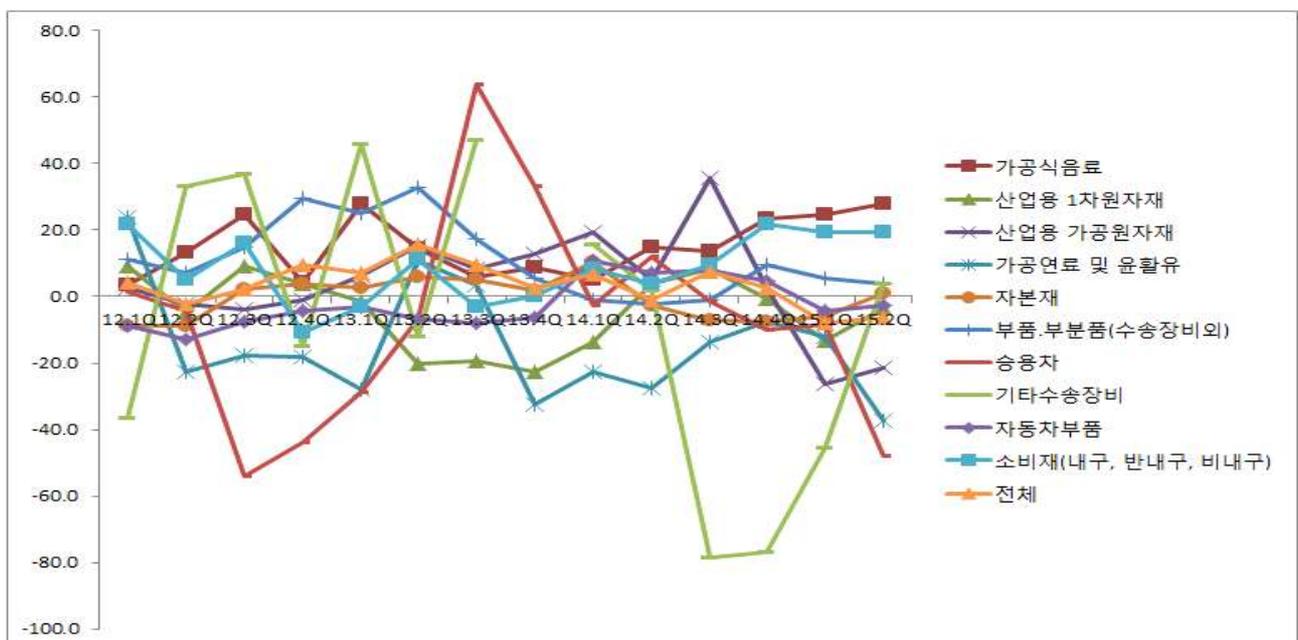
- 한국의 업종별 수출은 중국의 업종별 수입구조와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 제품이 포함된 산업용 가공원자재와 석유제품이 포함된 가공연료 및 윤활유의 비중이 2014년 3Q를 정점으로 급락
 - 반대로 부품·부분품(수송장비외) 및 소비재, 자본재의 비중 증가
- 이러한 동조현상은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큰 비중(20% 가량)을 차지하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동 업종 수입 둔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

<한국의 대중국 업종(카테고리)별 수출구조 변화>



- (업종별 수출 증가율)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업종은 높은 대중국 수출증가율로도 나타남
 - 대중국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수출증가율이 높은 카테고리로는 가공식품료, 소비재, 부품.부분품, 자본재등이 있음
 - 반대로 대중수출이 부진한 카테고리는 승용차, 가공연료 및 윤활유, 산업용 가공원자재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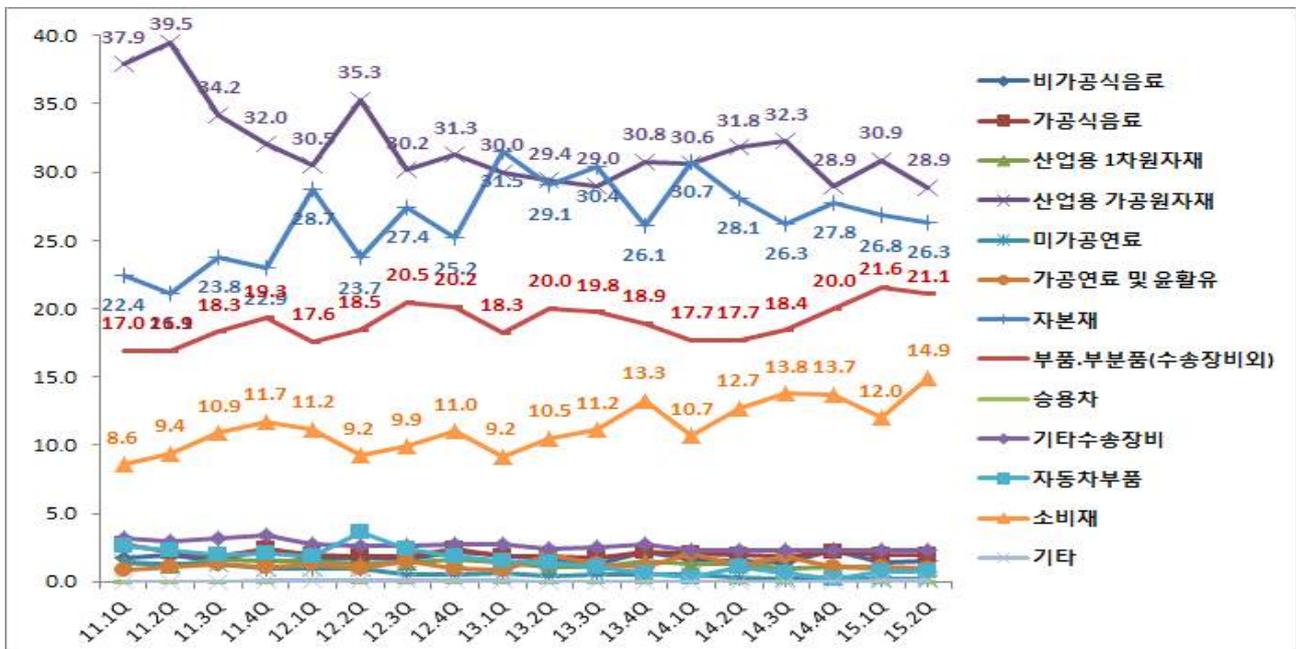
<한국의 대중국 카테고리별 수출 증가율(분기별)>



□ 한국의 업종(카테고리)별 대중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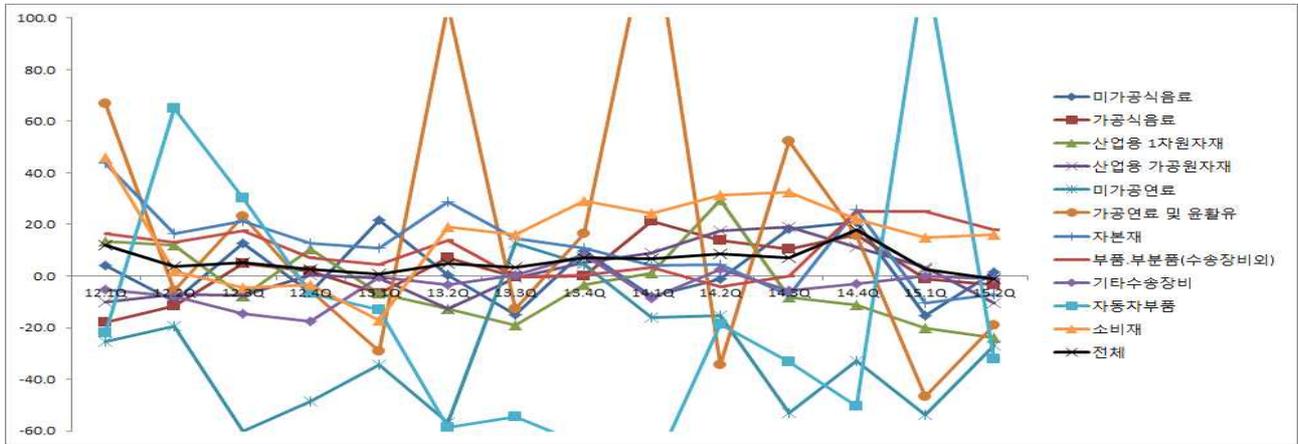
- (업종별 대중수입 비중) 대체로 중국의 업종별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변화가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가공원자재와 자본재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부품·부분품, 소비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카테고리별 수입 비중(분기별)〉



- (업종별 대중수입 증가율) 상기 업종별 수입 비중 변화는 업종별 수출 증가율에도 동일하게 나타남
 - 대중국 전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업종은 부품·부분품, 소비재, 미가공식음료 등
 - 반면 자동차부품, 미가공연료, 산업용 1차(미가공) 원자재, 가공된 연료 및 운할유, 산업용 가공원자재 등은 평균보다 낮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

〈한국의 대중국 카테고리별 수입 증가율(분기별)〉



4. 품목별

□ 중국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 주력 업종 및 중국내 생산경쟁력 지속 품목은 수출이 양호한 반면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감소, 글로벌 생산 이전(글로벌 밸류체인 변화)가 활발한 업종은 수출 감소

- (수출 양호 품목) 전기전자(5.2% 증가), 가구.침구.조명(6.7%), 게임용품·장난감·운동용품(11.3%), 선박(21.3%) 등 중국내 생산거점이 형성된 품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 성과 기록 중
- (수출 부진 품목) 기계(-12.2% 증가), 철강(-11.8%) 등 글로벌 생산과잉 및 글로벌 경기부진 관련 품목과 의류(-10.9%), 섬유제품(-3.8%), 신발.우산류(-5.0%), 기타 섬유제품(-5.3%) 등 글로벌 생산거점 이동(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대상 품목의 수출은 부진

<중국의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억달러, %, HS2단위)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0월)					
		수출금액	수출 비중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 비중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23,432.2	100.0	6.0	19,631.1	1.1	3,801.2	18,605.8	100.0	-2.3	13,148.8	-19.2	5,457.0
1	전기전자	5,711.9	24.4	1.7	4,251.9	-3.2	1,460.0	4,800.9	25.8	5.2	3,446.8	0.0	1,354.1
2	기계	4,009.8	17.1	4.6	1,797.1	5.3	2,212.8	3,002.7	16.1	-7.6	1,307.7	-12.2	1,695.0
3	가구.침구.조명	934.0	4.0	8.1	33.8	10.3	900.2	803.9	4.3	6.7	26.0	-7.2	778.0
4	의류	920.1	3.9	-5.0	20.7	24.1	899.4	689.2	3.7	-10.9	18.9	9.9	670.3
5	섬유제품	814.6	3.5	19.3	35.6	13.3	779.0	650.5	3.5	-3.8	30.3	0.1	620.2
6	광학.사진.정밀기기	740.4	3.2	-0.9	1,057.7	-1.8	-317.4	600.3	3.2	-1.5	814.7	-6.8	-214.4
7	플라스틱	668.3	2.9	8.2	751.9	3.9	-83.7	541.1	2.9	-1.6	548.9	-12.7	-7.7
8	수송장비	642.5	2.7	9.7	894.9	20.7	-252.4	520.3	2.8	-1.0	576.8	-22.5	-56.5
9	철강제품	607.0	2.6	5.8	118.0	12.8	489.0	503.5	2.7	2.3	83.4	-14.1	420.1
10	신발.헬멧.우산	562.6	2.4	10.8	23.0	17.4	539.6	446.1	2.4	-5.0	22.0	16.7	424.1
11	철강	555.0	2.4	43.6	211.9	-0.9	343.1	419.1	2.3	-6.6	156.6	-11.8	262.5
12	게임.장난감.운동용품	385.6	1.6	7.5	20.8	54.5	364.9	358.9	1.9	11.3	13.7	-18.5	345.2
13	유기화학	454.6	1.9	7.7	609.9	-7.6	-155.3	356.9	1.9	-5.4	406.7	-20.9	-49.8
14	가죽.가죽제품	303.7	1.3	-1.0	20.5	7.1	283.2	256.9	1.4	2.7	17.1	0.9	239.8
15	선박.보트	252.1	1.1	-13.1	13.2	-35.2	239.0	245.9	1.3	21.3	9.3	-15.3	236.6
16	광물연료	340.9	1.5	0.8	3,165.4	0.7	-2,824.5	226.9	1.2	-19.9	1,677.6	-37.4	-1,450.7
17	기타 섬유제품	284.9	1.2	6.2	4.8	12.7	280.1	223.2	1.2	-5.3	3.8	-3.8	219.4
18	세라믹제품	220.8	0.9	15.2	7.8	12.9	213.0	206.9	1.1	19.9	5.9	-10.2	201.0
19	진주.보석	632.1	2.7	26.2	419.0	128.5	213.1	198.0	1.1	-60.5	131.7	-64.9	66.3
20	알루미늄 및 그 제품	226.3	1.0	12.9	80.4	-7.6	145.9	196.2	1.1	9.1	58.6	-12.3	137.6
	소계(20품목)	19,267.2	82.2		13,538.1		5,729.1	15,247.4	81.9		9,356.5		5,890.9

* 진한 글씨 품목은 수출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품목

* 자료 : 중국해관통계(kita.net)

- (품목별 수입) 광물원료 및 광물자원, 원자재 수입이 급감한 반면
전기전자, 의약품 등은 양호한 수입증가율 기록
 - (수입 양호 품목) 전기전자(0.0% 증가), 의약품(4.7%)등 주력 품목의
원자재와 고부가가치 제품 양호한 수입증가율 기록
 - (수입 감소 품목) 광물성 연료 및 원자재*, 산업용 원자재** 수입
급감
- * 광물성 연료(-37.3%), 광 슬래그 및 회(-32.5%), 동(-20.2%) 등
 ** 유기화학(-20.9%), 고무(-19.3%), 면화(-19.3%) 등

<중국의 품목별 수입>

순 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0월)					
		수출금 액	수출증 감률	수입금 액	수입 비중	수입증 감률	수지	수출금 액	수출증 감률	수입금 액	수입 비중	수입증 감률	수지
	총 계	23,432.2	6.0	19,631.1	100.0	1.1	3,801.2	18,605.8	-2.3	13,148.8	100.0	-19.2	5,457.0
1	전기전자	5,711.9	1.7	4,251.9	21.7	-3.2	1,460.0	4,800.9	5.2	3,446.8	26.2	0.0	1,354.1
2	광물성연료	340.9	0.8	3,165.4	16.1	0.7	-2,824.5	226.9	-19.9	1,677.6	12.8	-37.4	-1,450.7
3	기 계	4,009.8	4.6	1,797.1	9.2	5.3	2,212.8	3,002.7	-7.6	1,307.7	9.9	-12.2	1,695.0
4	광학사진영화재료	740.4	-0.9	1,057.7	5.4	-1.8	-317.4	600.3	-1.5	814.7	6.2	-6.8	-214.4
5	광.슬래그.회	3.5	-7.4	1,362.3	6.9	-8.1	-1,358.8	2.0	-33.1	788.7	6.0	-32.5	-786.7
6	수송기계	642.5	9.7	894.9	4.6	20.7	-252.4	520.3	-1.0	576.8	4.4	-22.5	-56.5
7	플라스틱 및 그제품	668.3	8.2	751.9	3.8	3.9	-83.7	541.1	-1.6	548.9	4.2	-12.7	-7.7
8	유기화학	454.6	7.7	609.9	3.1	-7.6	-155.3	356.9	-5.4	406.7	3.1	-20.9	-49.8
9	채유용종자과실식물	31.2	6.5	459.5	2.3	7.7	-428.4	22.5	-4.6	326.7	2.5	-13.5	-304.3
10	동 및 그 제품	69.9	-2.3	476.8	2.4	-5.4	-406.9	47.4	-18.8	316.5	2.4	-20.2	-269.2
11	항공기	27.0	39.3	285.0	1.5	22.9	-258.0	25.5	24.6	223.3	1.7	-2.5	-197.8
12	철 강	555.0	43.6	211.9	1.1	-0.9	343.1	419.1	-6.6	156.6	1.2	-11.8	262.5
13	목재 및 그 제품	144.8	13.5	227.5	1.2	21.3	-82.7	118.6	0.0	156.5	1.2	-18.5	-37.8
14	의약품	65.9	5.9	177.4	0.9	17.5	-111.5	57.3	6.1	153.5	1.2	4.7	-96.2
15	펄프.종이	1.2	10.7	174.1	0.9	0.6	-172.9	0.9	-6.5	150.3	1.1	3.4	-149.4
16	진주.보석	632.1	26.2	419.0	2.1	128.5	213.1	198.0	-60.5	131.7	1.0	-64.9	66.3
17	화학제품	142.1	15.5	168.1	0.9	7.2	-26.0	111.2	-6.2	120.2	0.9	-14.7	-9.0
18	고무 및 그 제품	236.1	2.0	173.8	0.9	-12.6	62.3	170.0	-13.9	117.0	0.9	-19.3	53.0
19	면 화	163.1	-7.1	127.6	0.7	-25.9	35.5	131.0	-3.4	86.8	0.7	-19.3	44.2
20	철강제품	607.0	5.8	118.0	0.6	12.8	489.0	503.5	2.3	83.4	0.6	-14.1	420.1
	소계 (수입 상위 20개 품목)	15,247.2		16,909.9	86.1		-1,662.7	11,855.9		11,590.4	88.1		265.5

* 진한 글씨 품목은 수출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품목
 자료 : 중국해관통계(kita.net)

□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 전기전자, 기계류 등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급감

* 수출 증가 품목 : 전기전자(5.6%) 기계류 2.8%, 동 및 그 제품(-37.0), 무기화학(18.2%)

** 수출 급감 품목 : 유기화학(-25.5%), 플라스틱 및 그 제품(-12.2), 광물연료(37.0%), 철강(-22.2%)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입(한국기준)〉

(단위 : %, 억달러)

순번	품목명	2014년					2015년 (1~11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비중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비중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1,452.9	-0.4	900.8	8.5	552.1	1,261.6	100.0	-4.5	829.9	100.0	1.9	431.6
1	전기전자	511.8	6.4	284.4	8.2	227.4	488.6	38.7	5.6	292.1	35.2	15.7	196.5
2	광학.사진.영화.정밀기기	203.5	-6.5	40.9	14.9	162.6	177.8	14.1	-4.4	40.2	4.8	7.2	137.6
3	기계류	147.6	3.4	104.6	10.3	43.0	136.8	10.8	2.8	93.3	11.2	-0.7	43.5
4	유기화학	135.2	-9.9	26.5	3.0	108.7	92.9	7.4	-25.5	22.4	2.7	-7.4	70.4
5	플라스틱및그제품	103.8	-3.6	20.7	12.5	83.1	83.7	6.6	-12.2	20.3	2.4	8.4	63.4
6	수송기기	74.4	7.2	14.5	-7.0	59.9	57.8	4.6	-14.9	13.6	1.6	2.0	44.3
7	광물연료	78.0	-12.5	9.1	-32.6	68.9	45.6	3.6	-37.0	4.7	0.6	-45.7	40.9
8	철강	39.1	7.3	89.0	31.9	-50.0	28.0	2.2	-22.2	64.1	7.7	-22.1	-36.1
9	동과 그 제품	16.2	-19.1	5.6	7.2	10.6	14.7	1.2	2.3	4.0	0.5	-21.9	10.7
10	무기화학	11.2	44.0	20.1	15.2	-8.9	11.9	0.9	18.0	18.2	2.2	-0.6	-6.3
11	화장품.정유	6.0	89.3	0.6	8.7	5.4	10.6	0.8	108.7	0.6	0.1	7.5	10.0
12	철강의 제품	10.6	2.7	35.3	-3.0	-24.8	9.7	0.8	2.5	33.1	4.0	3.6	-23.4
13	화학제품	9.8	12.1	11.8	16.9	-1.9	8.1	0.6	-10.1	9.5	1.1	-11.4	-1.5
14	염료.안료	8.0	-11.4	4.6	9.9	3.4	7.4	0.6	1.0	4.0	0.5	-6.3	3.4
15	고무와 그 제품	8.9	-6.0	3.8	0.3	5.1	7.2	0.6	-11.8	3.5	0.4	0.2	3.7
16	알루미늄과 그 제품	6.1	2.7	7.5	6.0	-1.4	5.3	0.4	-2.3	8.3	1.0	21.8	-2.9
17	선박	4.4	-64.4	4.1	-27.3	0.3	4.5	0.4	48.9	5.3	0.6	43.3	-0.8
18	인조장섬유	5.5	-9.6	6.2	11.4	-0.7	4.3	0.3	-14.0	5.2	0.6	-7.7	-0.9
19	비금속제 제품	4.3	31.0	2.4	3.7	1.9	4.0	0.3	0.3	2.2	0.3	3.2	1.8
20	가구.침구.조명	5.1	-5.2	17.0	21.9	-11.9	4.0	0.3	-14.1	17.0	2.0	10.0	-12.9
	소계 (수출상위20품목)	1,389.4		708.6		680.8	1,203.0	95.4		661.7	79.7		541.2

자료 : 관세청(kita.net)

☞ (참고) 중국기준 대중국 품목별 수출 : 수출입 집계방식의 차이로 인해 액수상의 차이는 있으나 품목별 순위의 차이는 없음

<중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입(중국기준)>

(단위 : %, 억달러, HS2단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0월)						
		수출금 액	수출증 감률	수입금 액	수입증 감률	수지	수출금 액	수출비 중	수출증 감률	수입금 액	수입비 중	수입증 감률	수지
	총계	1,004.0	10.8	1,902.9	6.1	-898.8	831.4	100.0	1.1	1,417.2	100.0	-10.2	-585.7
1	전기전자	370.1	9.7	767.2	3.7	-397.1	313.6	37.7	5.0	646.3	45.6	4.5	-332.7
2	광학.사진.영화 재료	41.2	-0.8	223.2	-4.8	-182.0	35.3	4.2	2.6	176.7	12.5	-5.2	-141.4
3	기계	90.8	2.0	175.2	12.5	-84.3	77.7	9.4	3.8	146.1	10.3	2.1	-68.3
4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9	13.0	124.6	0.5	-106.7	17.0	2.0	17.1	92.0	6.5	-11.6	-75.0
5	유기화학	25.1	0.4	141.3	-7.9	-116.2	18.9	2.3	-10.6	89.0	6.3	-24.5	-70.1
6	광물연료 및 가공품	21.2	7.2	95.4	-7.6	-74.2	13.7	1.7	-28.2	55.1	3.9	-30.8	-41.4
7	수송기기	14.3	-4.0	57.1	10.5	-42.8	12.4	1.5	3.7	38.6	2.7	-17.2	-26.2
8	철강	83.4	27.8	43.2	9.1	40.2	54.6	6.6	-22.8	28.8	2.0	-20.8	25.8
9	동 및 그 제품	8.8	61.8	20.6	-14.8	-11.8	4.1	0.5	-44.9	16.6	1.2	-1.6	-12.5
10	화학제품	10.9	22.8	15.8	-2.3	-4.9	8.4	1.0	-7.8	12.8	0.9	-3.8	-4.5
11	무기화학	19.4	18.8	12.4	46.3	7.0	15.2	1.8	-1.9	11.1	0.8	11.7	4.1
12	철강제품	28.2	1.3	12.4	-2.1	15.8	24.7	3.0	8.3	10.5	0.7	2.5	14.3
13	고무 및 그 제품	3.7	7.7	11.6	-4.1	-7.9	3.1	0.4	3.3	8.4	0.6	-13.8	-5.3
14	알루미늄 및 그 제품	9.2	-8.0	10.6	6.1	-1.4	6.9	0.8	-8.0	8.3	0.6	-5.2	-1.3
15	유리 및 유리제품	6.6	21.2	5.5	15.8	1.0	5.9	0.7	10.0	6.2	0.4	37.9	-0.3
16	화장품.에센셜	0.5	22.0	2.5	55.4	-2.0	0.5	0.1	15.9	6.2	0.4	221.2	-5.7
17	금속도구 및 제품	3.3	8.6	5.1	38.5	-1.9	2.9	0.3	7.4	4.3	0.3	-1.4	-1.5
18	인조장섬유	6.2	14.6	5.7	-8.0	0.4	4.9	0.6	-4.7	4.1	0.3	-13.6	0.8
19	염료.도료	4.1	9.9	4.8	-1.9	-0.7	3.3	0.4	-5.5	4.1	0.3	2.4	-0.8
20	원피.가족	0.1	-26.7	5.1	0.3	-5.0	0.1	0.0	28.3	4.0	0.3	-6.8	-3.9
	소계 (수입상위 20품목)	765.1	-	1,739.5	-	-974.4	623.3	75.0	-	1,369.1	96.6	-	-745.9

* 진한 글씨 품목은 올해 대중수출 부진 품목(전체 대중수출 증가율 하회 품목)

** 품목분류 : HS2단위

** 자료 : 중국해관통계(kita.net)

5. 국가별 수출입과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 (수출) 일부 경기부진 선진시장 및 신흥 자원수출국향 수출 부진
 - 홍콩(-11.6% 증가), 일본(-9.4%), 독일(-4.8%), 네덜란드(-7.8%), UAE(-5.0%), 인도네시아(-9.8%), 러시아(-35.7%), 브라질(-19.5%) 등
- (수입) 신흥 자원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 부진
 - 호주(-29.4% 증가), UAE(-32.1%), 인도네시아(-22.0%), 러시아(-20.7%), 브라질(-19.5%) 등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달러, %)

순위	국가명	2014년						2015년 (1~10월)					
		수출금액	수출 비중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비중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23,432.2	100.0	6.0	19,631.1	1.1	3,801.2	18,605.8	100.0	-2.3	13,148.8	-19.2	5,457.0
1	미국	3,960.6	16.9	8.1	1,531.3	6.1	2,429.3	3,407.2	18.3	5.5	1,167.0	-6.5	2,240.2
2	홍콩	3,609.5	15.4	-7.5	92.4	-78.7	3,517.1	2,516.5	13.5	-11.6	59.4	-15.6	2,457.0
3	일본	1,494.5	6.4	0.5	1,626.9	2.3	-132.3	1,121.5	6.0	-9.4	1,176.1	-12.8	-54.6
4	한국	1,004.0	4.3	10.8	1,902.9	6.1	-898.8	831.4	4.5	1.1	1,417.2	-10.2	-585.7
5	독일	727.3	3.1	8.4	1,047.8	11.7	-320.5	570.0	3.1	-4.8	730.4	-16.3	-160.4
6	베트남	636.2	2.7	31.1	199.3	21.8	436.9	531.1	2.9	6.6	190.8	19.3	340.2
7	네덜란드	649.2	2.8	7.9	93.7	-11.2	555.5	488.5	2.6	-7.8	72.1	-5.7	416.3
8	영국	571.3	2.4	12.9	235.5	25.2	335.8	486.3	2.6	3.7	157.5	-19.6	328.8
9	인도	542.4	2.3	12.2	164.1	-1.8	378.2	481.6	2.6	8.4	111.2	-20.8	370.4
10	싱가포르	487.1	2.1	7.3	305.3	-3.0	181.7	433.1	2.3	12.2	219.3	-13.8	213.8
11	대만	462.8	2.0	14.7	1,523.1	1.3	-1,060.3	374.0	2.0	-3.0	1,167.0	-6.1	-793.0
12	말레이시아	462.8	2.0	0.9	557.7	-5.3	-94.9	369.0	2.0	-1.3	435.7	-4.5	-66.7
13	호주	391.2	1.7	4.4	901.3	-1.4	-510.1	328.0	1.8	3.4	545.2	-29.4	-217.2
14	태국	343.1	1.5	5.3	382.1	2.7	-39.0	311.9	1.7	14.2	305.7	-3.2	6.2
15	UAE	390.4	1.7	17.0	155.6	20.2	234.8	308.1	1.7	-5.0	90.9	-32.1	217.2
16	인도네시아	390.7	1.7	5.9	245.9	-21.7	144.8	287.3	1.5	-9.8	162.0	-22.0	125.3
17	멕시코	322.6	1.4	11.7	112.3	12.0	210.3	285.9	1.5	7.0	83.0	-11.7	202.9
18	러시아	536.9	2.3	8.4	415.6	5.6	121.3	284.7	1.5	-35.7	274.1	-20.7	10.6
19	캐나다	300.0	1.3	3.0	211.3	-11.5	88.7	245.5	1.3	0.4	151.4	-13.9	94.2
20	브라질	349.3	1.5	-3.3	519.8	-2.9	-170.5	237.3	1.3	-17.2	374.4	-19.5	-137.1

* 진한 글씨는 중국의 평균 수출증가율 하회국가, 진한 배경 글씨는 중국의 평균 수입증가율 하회국가

자료 : 중국해관통계(kita.net)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수출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

- 3년째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하는 가운데 ' 14년의 9.7%에서 ' 15년 1~9월 10.6%로 0.9%p 상승

<주요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 중국해관통계(CEIC)로 계산

1. 대중수출 전망

□ 대중수출 결정요인 검토시 2016년 수출이 낙관적이지 않음

* 대중수출 결정요인 : ▶중국의 수출, ▶중국의 내수, ▶현지 공급 및 조달 동향, ▶기타(원자재가격, 환율, 통상, 밸류체인 변화 등)



○ (중국의 수출) 한국의 대중수출과 깊이 연동되어 있는 중국의 수출은 EU 및 신흥국(자원국 포함) 경기 부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약화) 등으로 인해 부진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내수) 중국의 경기 둔화로 중국 내수용 수출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13.5규획기간(2016~20년) 목표 성장률을 6.5% 전후로 제시

- 다만 최근 수년간 나타난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중국내 현지공급 및 조달) 2016년 시작되는 13.5규획에서도 중국내 개발 및 제품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이어 10대 신성장산업 육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중국내 조달 확대에 따른 관련 제품의 대중수출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음
 - 다만, 과거와 달리 산업육성 과정에서 보호주의적 성격이 약화되고, 정보화 등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수요 가능성도 커 일부 수입수요 확대 가능성 기대

- (기타 요인) 불리한 요인과 기대 요인이 병존하는 가운데 대체로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국제유가) 셰일가스 개발, 글로벌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저유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대중국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우리의 대중국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
 - (환율) 2015년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에 따라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은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겠지만 변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 전기전자, 섬유 의류, 신발 등 주요 글로벌 밸류체인형(국제분업형) 업종의 중국내 생산이 베트남 등 여타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글로벌 밸류체인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련 업종의 대중수출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 (통상환경) 반면 한중 FTA로 인한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는 대중국 수출을 촉진할 전망

2. 대응시사점

- 현재의 추세로 보아 중국의 수출입 둔화는 물론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의 둔화와 구조 변화는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추세적 둔화속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의 방향은 반제품 및 자본재 중심구조에서 부품·부분품 및 소비재 중심구조로의 변화임
 - 한중 무역에서 국제분업(밸류체인)과 최종 소비재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제고와 유통망 구축이 중요해 질 것임
- 업종별 변화의 방향은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비중 감소와 전기전자 및 각종 소비재의 비중 확대임
 - 한중 무역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중요
 - 전기전자 및 소비재 비중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통망 강화와 연관 분야 개발*이 중요
 - * 전자상거래, ICT 기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등
- 가공무역은 앞으로도 한중간 수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감안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
 - 가공무역 방식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다국간 가공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중국-제3국(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가공생산(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한중 FTA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우리의 대중진출 경쟁국이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회이므로 다양한 활용전략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

중국의 수출입 및 한국의 대중 수출입 동향과 대응시사점
- KOCHI자료 15-013 -
ISBN : 979-11-86926-67-3 (95320)

발행인 : 김 재 홍

발행처 : KOTRA

편집인 : 윤 원 석

작성인 : 정 환 우

발행일 : 2015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1600-7119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2015 by KOTR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